

통합치과전문임상의(Advanced General Dentistry, AGD)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방난심, 김기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통합진료학과

ABSTRACT

The Mission and Vision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Nan Sim Pang, Kee Deog Kim

Department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Advanced General Dentistry (AGD) training program in Korea was established in 2006 in order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general dentists and to promote the oral health of the public. In 2012,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KAAGD) was organized by virtue of the increasing academic activities within AGD training program. Now a days, the society of Korean dentistry is encountering serious tasks; One is to search for new health care policy fulfilling people's increasing expectation toward dental services and the other is to develop an efficient method for training highly qualified general dental practitioner with the enforcement of dental boardman system in Korea ahead. In this situation, the AGD training program has been recognized as a considerable suggestion for the progress of Korean dentistr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look back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GD program and KAAGD and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m.

Key Words : AGD, KAAGD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서론

2006년 3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통합진료과가 개설되고 수련의 10명을 선발하여 수련의 교육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dvanced General Dentistry, AGD) 수련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3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도로 AGD 수련제도의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년간의 평가를 거쳐, 2009년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사업으로 AGD 수련제도가 공식 시행되고, 2012년 이를 계승한 대한통합치과학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대한통합치과학회는 갑자기 창립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내에서 시작된 AGD 수련 교육 제도의 교육 및 학술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회이다. 우리나라에서 AGD 수련제도 및 대한통합치과학회의 출범과 정착은 일차진료를 책임지는 일반치과의사들을 위한 교육과 관리, 권익보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구강건강증

Correspondence : Kee-Deog Kim, DDS, PhD Chairman, Professor
Department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South Korea
Tel: +82-2-2228-8980, Fax: +82-2-2227-8906, E-mail: KDKIM@yuhs.ac,
Received: Jul. 31, 2013; Revised: Aug. 8, 2013; Accepted: Aug. 13, 2013

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우리의 치과계는 나날이 높아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행되는 새로운 의료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치과 의사전문의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균형 있고 효율적인 치과 의료전달체계 조성 및 더 나은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할 치과 의사 양성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이 시점에서 AGD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치과대학 졸업생이나 기존의 치과 의사,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이 위기를 오히려 치과계의 발전기회로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수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변화, 발전해 온 AGD 제도 및 대한통합치과학회의 시행 취지와 설립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통합치과전문임상의(Advanced General Dentistry, AGD) 수련제도 실시

2006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통합진료과가 신설되고 10명의 수련의를 선발하여 수련교육을 시작하면서 AGD 수련 교육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치과 전문의제 실시를 앞둔 치과 의사 수련교육제도의 변화는 대다수 비수련 희망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바로 일선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과 함께 필요한 전반적인 영역의 일차진료 지식과 기술 습득 욕구를 충족시킬 대안을 필요로 했다. 대다수 치과대학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이러한 실질적 수련교육에 대한 요구는 2006년부터 수년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통합진료과에서 나타난 국내의 치과대학 졸업생들의 매년 증가된 관심과 지원 경쟁에서 나타났다. 종합적이고 심화된 수련교육내용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수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임상중심의 일반 및 심화전문교육을 모두 마친 수련의도 수련내용을 만족해하고 일선의 개원가에서도 이 수련과정을 끝낸 우수인력의 영입을 선호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2007년 대한치과 의사협회의 주도 아래 치과 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가칭)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약 2년간의 평가를 거쳐 2009년 대한치과 의사협회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위원회 설립 하에 공식적으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제도(AGD)를 시행하였다.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의 의료시장을 제어하여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하고 실제 환자에게 행해지는 일차진료의 양질화를 꾀하여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근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이 제도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위원회의 관장 하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병원 지정, 수련의 및 지도치과 의사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련교육과 수련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수련병원을 감독, 지시하는 등 법적 제도의 규정 하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공식적인 제도 시행 첫 해, 30개의 수련병원이 지정되어 70명의 수련의가 선발되었고 2013년 현재는 수련병원 21곳에서 83명의 전속지도치과 의사의 교육 하에 72명의 수련의들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걸친 강의 및 임상실습, 학술 활동, 학회 참석 등을 포함하는 엄격한 2년간의 수련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수련제도를 거쳐 약 170여명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가 배출되었으며 현재 일선의 일차의료기관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2.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제도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치과계 내에서도 좋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치과 의사협회는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경과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조치 시행기간은 경과규정 시행공고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년에 한하기로 하였고 2010년 면허취득자의 경우 필수교육 160시간과 일반교육 40시간, 총 200시간을 교육받아야 하고 이후 1년 간격으로 10시간씩 감경하여 20년차 이상부터는 필수교육 8시간과 일반교육 2시간 등 총 1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필수교육은 AGD 수련위원회가 주관하여 전국 5개지역에서 시행하는 강의, 또는 협회 종합학술대회(8시간 인정) 및 18개 각 시도지부 자체 또는 공동 학술대회를 AGD 수련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체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강의의 경우 2010년 3월 ~ 2011년 10월까지 제1, 2차년도 교육은 지역별로 192시간 교육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 12월 ~ 2012년 12월까지 지역별로 128시간 교육으로 편성하되, 참석인원수를 고려하여 교육 참석이 저조한 지역의 경우 교육 횟수를 조절하여 운영되었다. 임상실습의 경우 대한치과 보철학회,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레이저치의학회, 인하대병원(AGD 수련병원) 등을 통해 임상실습을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총 지원자 11,471명중 6,541명(57%)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AGD 경과조치 이수자중 면허취득 년도가 1991년 이전인 20년차 이상의 치과의사들이 이수자 전체의 58.5%로 많았으며 10년차 아래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허를 취득했던 이수자는 전체의 11%에 해당하였다.

3. 대한통합치과학회의 창립

치협 AGD 경과조치 교육이 마무리되는 2012년, AGD 수련제도의 연장으로 대한통합치과학회가 창립되었다. 대한통합치과학회는 갑자기 창립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내에서 시작된 AGD 수련교육 제도의 교육 및 학술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회이다.

대한통합치과학회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수련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AGD 경과조치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물론,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통합치과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개방되어, 이들의 치의학 연구와 계속 교육을 지원하고 봉사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국민구강보건증진과 구강건강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짧은 역사지만 대한통합치과학회는 그간 AGD제도 설립 초창기부터 다양한 학술대회 및 대외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학회설립과 동시에 이전부터 준비된, 체계적인 임원 및 조직원을 구성하고 설립취지에 합당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식적으로 학회 소식지와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올 11월 제 4회 학술대회를 개최예정 중에 있고 단순히 회원관리나 학술대회 준비뿐 아니라 치과계 일차진료 임상의 교육을 위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만드는 교과서편찬위원회나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과 관련되어 AGD 제도를 포함하여 전문의로서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전문의제도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기간 내에 1,000명에 육박하는 많은 회원수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앞으로 외국의 일반치과의사들을 위한 학회들처럼 일차 치과진료 치과의사를 대변하고 회원의 계속 교육과 관리를 통해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치의학계 최고, 최대의 학회 중 하나로 자리 잡으려는 발판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안

제안 1.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련교육 교과과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선의 일차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역량 있는 일반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치과 전 분야에 걸친 임상지식과 기술을 어떤 내용과 구성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 교육할 것인지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변화하는 치과의사 수련교육제도와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르기 위해서는 교육과 진료영역에 대한 전문 과목별 지원과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일반치과의사 배출을 위해 요구되는 임상지식 및 술기 등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안 2.

교육과정뿐 아니라 습득된 임상지식과 기술이 실제로 각각의 임상교육현장에서 어떤 수준으로 적용되는지 진료수준의 질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수련과정 기간 내 시행된 임상 증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조정,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꾸준한 교육평가 시스템 개발과 인력관리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제안 3.

현재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전문임상의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인식하에 개편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AGD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6,700명을 대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임상의제도 개선 방안에 AGD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개진을 계획 중에 있다. 새로운 전문의 과정 신설시 AGD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AGD 제도를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임상의제도 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 제도가 단순히 학부교육과정의 연장으로 시행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의료교육 추가부담이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대상인 국민의 몫이 되어선 안 될 것이며, 또한 소수를 지향하는 전문의 제도에 대한 병원의 인력보충 방안으로 오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교과과정의 기준 설립, 진료수준의 질 관리, 또 이를 수행할 교육인력 관리나 조직 관리,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전담할 별도의 전문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병역이나 전문의제도와 연계 등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다행히 대한통합치과학회의 활동에 이러한 교과과정이나 교육기준을 마련하려는 위원회들이 구성되고 계속해서 회원들의 교육이나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려는 것, 그리고 전문의제도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통합치과전문임상의제도의 해결과제들을 풀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심히 고무적이다.

결론적으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제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행동하여야만 그 제도 설립의 취지대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일차진료기관의 일반치과의사들의 질적인 수준을 올리면서 환자에게 더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치과의사협회, 학계, 의료계, 관련 행정부 등 관련종사자들이 이 제도의 설립취지에 맞는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의 개편의지를 보여야 하고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련이나 수련을 마친 수료자, AGD 경과조치 수료자, 그리고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원 및 관련된 일반치과의사들은 자긍심을 갖고 교육과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변화하는 치과계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치과의사로서 제도적인 권익 추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결산보고서. 대한치과의사협회 AGD 수련위원회.
2.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2012.12). 보건복지부.
3.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자료(2012.12.27.). 대한치과의사협회.